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2022 개정 교육과정·2028 대입개편안 반영해 대입전형을 설계하는 2026년, 92개 대학 지원 및 연차평가를 통해 안정적 대입 환경 조성
- 고교학점제 등 고교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고교교육 기여' 모델 발굴·확산

교육부(장관 최교진)은 2월 24일(화),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입학(이하 대입)전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올해는 4주기(2025~2026년, 2개년) 사업의 2차 연도 사업으로, 작년에 선정된 전국 92개교 대학에 총 57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업 현황 점검을 통해 성과를 확산한다.

1차 연도(2025년) 사업 추진을 통해서는 고등학생을 위한 선택과목과 전공·진로 체험활동 개설, 1:1상담(멘토링)과 대입전형 안내·상담 운영 등 학생·학부모에게 총 445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대입전형이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논술·특기자 전형보다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였다.

* 4주기 사업 참여요건 : '26~'28학년도 수도권대학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운영(일부대학은 40% 이상)

※ 사업참여대학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비율 : '25학년도 89.0% → '26학년도 88.8% → '27학년도 89.3%

<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요 >

- (목적) 전형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을 제고하여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
- (규모) 총 92개교* / 2026년 기준 58,533백만 원(사업관리비 1,000백만 원 포함)
* 기본사업 선정 대학 중 자율공모사업 수행 대학을 선정

구분	지원목표	선정/지원 규모
기본사업	대입전형 운영을 통한 고교교육 지원 및 사회적 책무성 확보	92개교 / 537억 원 내외(교당 약 5.8억 원)
자율공모사업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분야별 선도모델 발굴 및 성과확산	16개교 / 38억 원 내외(교당 약 2.4억 원)

- (사업기간) 2026.3. ~ 2027.2.
- (지원내용) 입학사정관 인건비 및 교육·훈련 경비, 대입전형 연구비, 고교(시도교육청) 협력 활동 운영비, 사업 성과 확산 등에 필요한 비용 등

2026년에는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시행, 2028 대입개편안 도입 등 대입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차평가를 통해 작년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대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2028 대입개편안 취지를 반영해 새로운 입학전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를 고려하여 대학의 역할 수행과 입학전형 개선이 공교육 안정화, 사교육 부담 완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2026년 연차평가의 지표 배점을 설정하였다.

< 2026년 연차평가 주요 지표 현황 >

평가영역 및 세부지표		2025년 선정평가	2026년 연차평가
■ 고교 연계성			
	▶ 고교 교육과정 직접 지원	10점	15점 (+5)
	▶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 운영	10점	15점 (+5)
■ 사회적 책무성			
	▶ 대입정보제공 확대	10점	12점(+2)
	▶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합리적 운영	5점	6점(+1)
	▶ 대학별고사 및 특기자전형 운영	-20점	-25점(△5점)

한편, 사업 참여 대학들이 실시한 입학전형 개선 연구 결과는 다른 대학들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대학의 누리집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누리집’(https://www.kcue.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공모 사업(4가지 분야* 16개교) 대상으로도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의 이행 노력, 1차 연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을 평가한다. 성과 공유회 개최 등을 통해 대학이 지역 고교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도모형(모델)의 발굴·확산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①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② 교육과정 직접 지원, ③ 전형 운영 개선(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등), ④ 대입정보 제공 확대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올해는 대학별로 고등학교의 새로운 평가 체제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하는 해이다.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이 마련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별첨】 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담당 부서	대학정책관	책임자	과장	신진용 (044-203-6885)
	대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은정 (044-203-6888)
			주무관	김민지 (044-203-6889)

